

SNUAC Asia Square Brown Bag Seminar Series, Fall 2023

동티모르 이언어 사전: 한국어-테툼어(동티모르어) 사전을 중심으로

최창원

본 세미나의 주제는 언어다. 언어라는 인간소통의 작지만 핵심적인 도구를 통해 동티모르를 관찰하고 동티모르와 함께해 온 대한민국을 관찰하는데 작으나마 혜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세미나에서 말하는 중심 언어는 동티모르의 토착어이자 공용어인 테툼어이며, 그 언어를 담는 매체는 사전학이다. 그 중에서도 규범 사전학이 아닌 이언어 사전학이다.

테툼어 학습자를 위한 이언어 사전으로 테툼어-영어, 테툼어-포르투갈어, 테툼어-인도네시아어 사전에 이어 테툼어-한국어 사전이 이미 출판되었다. 특정 언어를 표제어로 하는 테툼어 사전은 동티모르인이 해당 언어를 배우기 위한 사전으로 이언어 사전의 완결판이다. 2024년에는 한국어-테툼어(한테) 사전도 출간된다. 특정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에게도 사전학적 관점은 그 논리적 구조와 구성요건에 있어 생소하기 마련이며, 동티모르라는 나라와 테툼어 또한 생소할 수 있어 한테사전 작업에서의 집필 절차와 쟁점을 함께 소개한다.

포르투갈어는 동티모르의 공용어로 영어와 인도네시아는 업무어로 한국어와는 그 법적 지위가 다르다. 동티모르 내 순수외국어에 해당하는 언어 중에서 최초로 테한사전의 완간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과 동티모르국립대 한국학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작은 사용자의 언어까지도 지원해 준 네이버를 통해 협업의 성과가 가시화되었고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판을 위한 퇴고 단계에 있다.

최창원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로 동티모르의 공용어인 테툼어 사용 공간인 동티모르에서 한테사전의 집필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에서 평화안보학을 학습하고 동티모르국립대에서 외국인교수 중 최장기 교육활동(14년)을 하며 동티모르대학 내 최초의 지역학센터인 한국학센터를 설립 운영했다. 주요활동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세 하무스 오르타' 초청 평화좌담회 기획 운영, 글로벌중추국가 워크숍, 동티모르 유엔개발계획(UNDP)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동티모르 만들기 기획 및 자문, 유엔협회세계연맹(WUFUNA) 초청 평창 피스컵 동티모르팀 단장, EBS 세계테마기행 '본디아 동티모르' 나레이터, 여수EXPO 동티모르 사절 부단장, 동티모르 관광산업자원부 자문관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테한사전」이 있으며 테툼어 번역서로 「Ekonomia Koreanu」, 「Istoria Korea Modern」, 「Faktu kona-ba Korea」가 있다. 공공기관 대상 자문 및 강연과 동티모르 연구를 병행하며 전문성을 심화하고 있다.

Date & Time: Nov 21, 2023.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